

완도군, 4월 추천 관광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오세요!

한 달간 슬로걷기 축제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이벤트 진행

완도군이 4월 추천 관광지를 4월 1일부터 한 달간 '슬로걷기 축제'가 열리는 '청산도'로 선정했다.

군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및 관광지·특산품 홍보를 위해 '월별 추천 관광지'를 방문하고 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후기를 남기면 특산품을 증정하는 '완도, 열두 달의 설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4월의 추천 관광지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이며, 청정한 자연과 돌담길, 구들장 논 등 고유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느림의 여유'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4월이 되면 유채꽃이 섬 전역을 노랗게 물들여 봄바람을 타고 42.195km의 슬로길을 걸으면 절로 힐링이 된다.

4월 한 달 동안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을 주제로 '슬로걷기 축제'도 열려 서편제길, 범바위길 등 곳곳에서 걷기,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 및 세부 일정은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는 관내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관내 숙박, 식당, 카페 등을 이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쿠폰 또는 완도 청정마켓 포인트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완도 치유 페이도' 4월까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유채꽃이 풍성하게 피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있으니 4월에는 슬



로시티 청산도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 인공지능 CCTV, 주민 목숨 구했다

극단 선택 의심 주민 경찰과 함께 사전 감지·구조 성공

장성군이 첨단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주민을 조기 발견해 구조했다.

상황이 벌어진 시각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23분경이다. 군은 경찰 상황실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의 차량 정보를 받았다. 이후 즉시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 인식 CCTV(폐쇄회로티브이)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사람, 차량 식별 및 동선 추적 △인상착의 검색 △화재, 폭력 등 이상행위 자동 감지 △차량번호 검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진원면 모처에서 차량의 최종 위치를 확인한 군은 곧바로 경찰 상황실에 이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민을 발견해 구조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로써, 상황 접수 10

분 만인 10시 33분에 차량 식별과 위치 추적, 구조까지 모든 과정을 해내며 '꿀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처로 지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현재 지역 내 주요 구간마다 '지능형 CCTV' 1800여 대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 인공지능이 영상에 감지된 내용을 관제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줘, 각종 상황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는 것'을 넘어 '듣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최근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에 선정돼 학교 앞, 사거리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강진의 봄밤' 다시 불을 밝히다

공연·체험·캠핑으로 야간관광 본격화

강진군은 오는 3일 2026년 상반기 '강진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를 개장하고, 강진의 봄밤을 품은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강진 불금불과 행사'는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휴식이 어우러진 강진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정취와 사람의 온기를 담아 강진만의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르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지역의 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불금불과는 계절의 감성과

월별 테마를 살린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원데이-원장르' 방식의 무대를 마련해 하나의 장르가 지닌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선보일 예정이다. 장르별 특색을 살린 집중형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선명한 감동과 몰입감 있는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그 첫 무대는 4월11일 열리며, '봄의 낭만'을 주제로 한 어쿠스틱 공연으로 꾸며진다. 따뜻하고 잔잔한 선율이 불밤의 정취와 어우러져 강진의 밤을 한층 더 로맨틱하게 물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4월3일 특별가수 '싸이버거' 공연도 예정돼 있어 상반기 개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체류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큰 호응을 얻었던 '돌아온 병영 캠프(불금불과 텐트촌)'는 기존 토요일-일요일 운영에서 금요일-토요일, 토요일-일요일로 확대 추진되며, 하멜텐트촌 또한 금요일-토요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족·연인·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머무르며 강진의 밤을 보다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텐트촌 운영 홍보와 예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해 온라인 중심의

홍보와 참여자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불금불과는 강진의 밤을 밝히는 행사를 넘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사람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강진만의 문화관광 자원"이라며 "2026년 상반기에는 계절의 감성과 월별 테마가 살아있는 공연, 체류형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더욱 매력적인 불금불과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암군이 XR 기술을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XR 직업체험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는 ▲과학(천문학, 우주탐사) ▲의료(의료교육) ▲공학(컴퓨터,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드론, 우주탐사) ▲체육(경기 시뮬레이션) ▲예술(음악, 뷰티, 요리) 등 6개 분야의 직업을 XR 콘텐츠를 활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영암군, XR로 미래 직업 체험 '직업체험 챌린지' 참가자 모집

교육은 4월 18일 영암 달빛청춘마루와 삼호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영암읍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삼호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회차별 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신청 관련 문의는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061-470-2717)

로 하면 된다. 영암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XR 기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함평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먹거리 복지 강화"

농산물 지원으로 건강한 식생활 제공·지역 농가 상생 도모

전남 함평군이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산물 바우처를 지급한다.

함평군은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이다. 임신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아동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은 1992년 1월 1일부터 2007

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국내산 과일 ▲채소 ▲흰유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지정된 매장이며, 노병철 함평군 농업정책실장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재료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담양군이 오는 4월 3일 생명 나눔 문화를 넓히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돕고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연다.

군은 최근 헌혈 참여자가 줄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매년 단체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담양군, 4월 3일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 위해 앞장

한 번의 헌혈로 최대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건강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올해 단체 헌혈은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며, 4월 3일 군청을 시작으로 7월 31일에는 군청과 보건소 등에서, 10월 30일에는 다시 군청에서 연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헌혈 확인증을 지급하며, 참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행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